

韓國本〈父母恩重經〉形成에 관한 研究*

- 西夏本 및 高麗本の 板本學的 接近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umo-Unjungkyong> in Korea

- Bibliographical Approach about Woodcut Prints of Xixia and Koryo Daynasty -

宋 日 基(II-Gie Song)**

〈 목 차 〉

- | | |
|--------------------|------------------------|
| I. 緒 論 |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TK240) |
| II. 西夏의 書籍文化 | IV. 高麗本〈父母恩重經〉板本 |
| 1. 西夏文獻의 出現 | 1. 佛說父母恩重經(大德本) |
| 2. 西夏의 書籍文化 | 2. 佛說大報父母恩重經(戊午本) |
| III. 西夏本〈父母恩重經〉板本 | 3. 佛說大報父母恩重經(鳩譯本) |
| 1. 佛說報父母恩重經(TK119) | V. 西夏 TK240 본과 고려 鳩譯本의 |
| 2. 佛說父母恩重經(TK120) | 比較 |
| 3. 佛說父母恩重經(TK139) | VI. 結 論 |

초 록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초기에 흑수성 불탑에서 발견된 서하목판본 〈은중경〉에 대한 서지학적 측면의 고찰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간행된 은중경과 상호 비교를 통해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하본 TK240과 고려후기에 간행된 〈鳩譯本〉의 간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후기에 간행된 〈은중경〉의 독자적 판각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주제어: 부모은중경, 불설부모은중경, 은중경, 서하본은중경

ABSTRACT

This study is a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Xixia woodcut print <Pumo-Unjungkyong> which was discovered in a stupa at Khara-Khoto in early 20th century. Comparing with other <Pumo-Unjungkyong> published in Koryo Dynasty, I examine the relativity of both print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Xixia woodcut print <Pumo-Unjungkyong>TK240 has a close similarity with <Pumo-Unjungkyong>(translated by Kumaraṣīva) published in later Koryo Dynasty. And it will be an important fact which can make clear independent publication of <Unjungkyong> printed in later Koryo Dynasty.

Key Words: Unjungkyong, Pumo-Unjungkyong, Bulseol-Pumo-Unjungkyong, Xixia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접수일: 2006년 2월 27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緒論

지난 20세기 초 1909년에 코즐로프가 이끄는 러시아 탐험대가 내몽고의 흑수성 유적에서 대규 모의 서하시대 유물과 문헌을 발굴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박물관에 收藏된 바 있다. 그 중에는 서하시기의 회화, 조소유물, 서하문과 한문으로 쓰여지거나 판각된 서하문헌이 수천 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17년에 寧夏의 靈武에서도 상당량의 서하문 불경이 출토되어 그 중 100여권은 후에 북경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50년대 이후로 돈황의 막고굴, 서안의 유림굴 80여개의 서하동굴, 은천의 거대한 서하능원, 감숙지역 등에서의 서하문헌 발견, 하란산 일대의 서하탑 3기에서 서하의 목판, 불화, 불경 등의 발견, 안휘, 하남의 서하 후손이 소장한 家譜와 비문의 수집 등 중요한 서하문물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이처럼 20세기에 西夏書籍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 중국의 王國維, 羅振玉, 周叔迦, 王靜如 등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그 일부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하서적이 세계 여러 곳에 분산 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기에 전문가들이 서하문헌에 관한 초보적인 소개가 있었고, 80년대 초에 소련의 게련길야부(季連吉耶夫)가 『西夏國的書籍事業』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비로소 러시아 소장의 서하서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근년에 高樹楡가 『寧夏古代刻本與藏書初探』을 저술하여 서하시기의 서적과 각인사업에 대해서 널리 알렸으며, 또한 徐庄교수는 〈略談西夏雕版印刷在中國出版史中的地位〉라는 글을 발표하여 판본학적 관점에서 서하의 목판인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1993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상해고적출판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가 공동으로 〈西夏文獻〉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俄藏黑水城文獻』이란 서명으로 영인 출판하게 됨으로서 서하문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은중경을 조사하여 수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 그 동안은 주로 판본학적 측면에서 80여종에 이르는 판본의 간행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근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널리 유통되었던 은중경이란 경전의 문헌 성립 사적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전역에 유포되었던 은중경에 관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탐색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돈황을 비롯하여 서역 전역에서 발굴되어 세계 여러 국가에 분산 수장되어 있는 자료를 영인하

1) 宋日基, “韓國本『父母恩重經: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9집(2000. 6).
 宋日基, “韓國本『父母恩重經:인해·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5권, 제2호(2000 여름).
 宋日基, “『父母恩重經:漢文』韓·中板本考,” 中華人文科學研究, 제5집(2000. 12).
 宋日基,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宋日基, “경주 祇林寺 소장 〈佛說父母恩重經〉에 관한 研究,” 文獻情報學報, 제7집(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2004).

여 〈敦煌文獻〉이란 이름으로 출판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1996년부터 내몽고 흑수성에 발굴된 서하문헌을 중심으로 『俄藏黑水城文獻』이란 전집을 출판해 왔으며, 2005년에는 북경도서관 등에 수장되어 있는 〈西夏文獻〉도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 뜻밖에도 은중경의 사본 및 간본 여러 종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심 즐거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恩重經〉이란 경전을 탄생시킨 중국에서 정작 한 종도 아직까지도 그 소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중국의 북쪽 변방에 있었던 西夏에서 사본이 아닌 목판본 5종(한문본 4종과 서하문본 1종)이 발견되자, 그 동안 미궁으로 남아 있던 한국본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西夏’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는 관계로 먼저 그 동안 〈西夏文獻〉의 영인 작업에 직접 참여해 온 중국의 史金波선생 등의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췌하여 2장에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²⁾ 그리고 서하문헌에 수록된 5종의 은중경 판본 중에 서하문본을 제외하고 한문으로 간행된 4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하 한문본 4종과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고려본을 상호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앞으로 진행할 은중경의 문헌성립 및 판본의 변천 과정 등 종합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西夏의 書籍文化

1. 西夏文獻의 出現

서하는 중국 고대와 중세에 걸쳐 존속했던 다민족 왕조이다. 서하의 주 민족은 탕구트(黨項)족이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漢族, 위구르족(回鶻族), 티베트족(吐蕃族)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나라와 당나라 때 그 세력이 점차 커졌으며, 당나라 초기에 가장 강대했던 拓跋部 수령 拓跋赤辭가 당나라에 귀의하여 李씨 姓을 하사받았다. 초기에는 북송, 요나라와 鼎立했으며, 후기에는 남송, 금나라와 대치관계를 이뤘다. 탕구트족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민족의 하나로, 남송시기에 주로 사천 북부와 靑海 남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 경계는 동쪽으로는 松州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葉護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春桑, 迷桑 등의 오랑캐와 북쪽으로는 吐谷渾과 접해 있으며, 산의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삼천여리에 달했다. 당나라 중기에는 서쪽의 티베트 세력이

2) 史金波선생은 청년시절부터 서하문헌에 관심을 갖고, 이 방면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여 『西夏文化』(1986), 『西夏佛教史略』(1993), 『西夏文物』(1988) 등의 저술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의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2000)와 『俄藏黑水城文獻』(1997)에 실려 있는 내용을 주로 소개하였다.

강력해지자, 이 때문에 탕구트족은 티베트의 압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당나라의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하의 서적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번성하였으며,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서 다양한 문헌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금세기 초까지는 서하시대의 서적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서하서적이 처음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서하가 망한지 680년이 지나고 나서이다. 즉 20세기 초반인 1909년에 러시아의 탐험대 코즐로프(柯茲洛夫) 대장이 黑水城 유적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진귀한 전적이 흑수성 밖 서북부에 있는 하나의 탑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대량의 불상과 불화가 함께 발견되었다. 현재 이것들은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모두 8000여 편 정도로 12개의 큰 책장에 들어있다. 필사본과 刊印本 서적의 수는 천 여권 정도이며 그 중 대다수는 서하시기의 것이고, 송대와 금대의 서적 일부가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란 만한 발견은 중국 돈황 장경동에서 대규모의 문헌이 발견된 것이다. 이 돈황유서는 그 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알려진 서하서적에 관한 많은 상황을 변화시켰으며, 또한 현존하는 중국 고대진본의 수량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서적은 서하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서하시기 내지 중국 고대시기의 서적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이후로도 서하문헌은 계속해서 발굴되고 출토되었다.

그 후 1914년에 영국인 스타인이 코즐로프의 뒤를 이어 흑수성 유적에서 서하문자로 쓴 문헌을 일부 발견하였는데, 이는 현재 대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1917년에 寧夏 靈武縣과 知縣에서 余鼎名 이 성벽을 수리하고 축성할 때 서하문자로 된 불경 두 상자를 발견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후에 북경도서관에 수장되었고, 그 나머지 일부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여러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 스벤헤딘(斯文赫定)과 중국 북경대학의 徐炳昶을 대장으로 하여 조직된 中瑞西北科學考察團은 1927년에 흑수성에서 문헌들을 발견하여, 현재 스웨덴의 스톡홀름 박물관과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 나누어 수장되었다. 일본의 오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역시 중국에서 서하문헌 일부를 발굴하여 가져갔다. 프랑스, 인도, 베트남 역시 중국에서 유실된 서하문헌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49년 이후에 서하문헌이 또 새로 발견되었으며, 1952년 감숙성 天梯山 석굴에서 서하문헌 일부가 발견되었다. 또한 1972년 감숙성 무위장의공사 아래의 西海峴에서도 상당량의 서하문헌이 수습되었다. 이후에도 1983년과 1984년 내몽고 고고연구소에서 흑수성 유적을 발굴 조사하였는데, 이 때 서하문헌 일부가 출토되었다. 최근 1991년 賀蘭縣 배사도 내방탑 중앙에서 역시 서하문헌 수십 종이 발견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돈황연구원에서는 돈황 북부의 동굴을 정리하고 발굴하였는데, 이 때 역시 많은 서하문헌을 또 발굴했다. 이 진귀한 문헌들은 모두 서하서적의 판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물자료이다.

그 중 흑수성 문헌이 가장 양이 많고 내용이 풍부하며, 판본의 종류도 다양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다. 러시아 흑수성 문헌은 일찍부터 각국 서화학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으며, 최근 몇 년에 각국의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서하문헌을 조사하고 열람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 결과, 서하서적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言語・文字類〉를 비롯하여 〈法律・文書類〉〈文學・蒙書類〉〈醫方・曆書類〉〈古籍譯文類〉〈佛經類〉서적 등 여러 주제분야에 걸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하의 서적은 모두 중세의 古文獻들로, 세계 유수의 도서관과 박물관은 모두 이러한 珍本・善本을 收藏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하 서적의 발견은 현존하는 중국 고적의 면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돈황 장경동의 발견으로 인해 唐代의 문헌들이 풍부해졌으며, 서하와 동시대인 송나라의 고적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 비록 상당하다고 하나 1,000여 부를 넘지 않는다. 요대 서적은 더욱 희귀하며, 금대 서적은 대장경 『趙城藏』의 발견으로 인해 그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세속문헌의 수가 매우 적다. 하지만 현재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서하 서적은 그 수가 천여권에 달하며, 그 중에 세속문헌이 100여 권 정도나 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서하문헌을 한 책도 구경할 수 없었지만, 현재 서하서적은 중세와 고대시기 서적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토된 상황을 보면, 서하의 고문헌은 다른 곳에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西夏의 書籍文化

서하의 문화는 상당히 발달하여 동아시아문화사에 있어서 한 획을 남겼다. 서하의 통치자들은 민족문화를 제창하고, 민족문자 창제에 적극적이었으며, 민족의 의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儒學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중원의 경전을 번역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학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불교를 힘써 보급하였고, 불경을 번역하였으며, 사원을 널리 건립하였고, 많은 승려가 있었다. 서하는 비록 서북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문화와 전장제도는 중원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서하의 문화 가운데 서하문자의 창제와 보급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서하문자의 창제는 서하가 정식으로 국가를 건립하기 2년 전(1036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통치자인 이원호의 발의와 지원 아래, 대신 야리인영(野利仁榮)이 만들었다. 서하 문자가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西夏文으로 쓰여진 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서하는 유학을 보급하는 것과 동시에, 황실을 중심으로 하여 민중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신봉하였다. 景宗은 매 분기(3개월)의 첫 번째 달의 朔日(음력 초하루)을 '聖節'로 제정하고, 민관이 모두 두 예불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서하의 초기에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송나라로부터 대장경을 입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본으로 하여 경전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는 서하

의 불교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역과 河西 일대의 위구르 고승을 청해 불교를 전수받고 경전을 번역하였다. 서하문대장경은 서장문 불경을 제외하고는, 소수민족 문자로 번역되고 결집된 최초의 대장경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하에서 간행된 한문대장경 또한 당시의 몇 종 안 되는 한문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으로 서하는 서부의 티베트지역으로부터 서장불교를 흡수하였다. 많은 藏族 승려들이 서하에 불교를 전했으며, 西藏文 불경을 서하문으로 번역하고, 서장의 밀교의 佛畫를 제작하였다. 서장에서 전해진 불교의 영향 역시 심대하였다. 서하는 절을 짓고 탑을 만들고 대규모의 譯經 및 印經 사업에 재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역대 왕조 가운데 황제로부터 황태후의 이름으로 편찬되고 필사된 발원문이 서하서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교는 완전히 서하의 國教로 자리하였고, 더욱 주목을 끄는 사실은 서하왕조는 帝師를 맨 처음으로 봉하고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서하문 문헌 가운데는 2명의 제사의 이름이 보인다. 이는 원나라 때 최초로 제사를 봉하고 설치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제사제도는 중국 봉건사회의 특수한 불교체제로서 작용하였는데, 탕구트족이 세력을 장악한 서하에서 최초로 나타났으며, 그 후에 몽고족이 정권을 수립한 원나라에서 계승되고 완벽해진 하나의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발달된 西夏의 문화 중 인쇄문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하에서는 목판인쇄가 매우 성행하였다. 목판인쇄는 서하 인쇄업의 주체였을 뿐 아니라, 서하에서 발전된 목활자 인쇄술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전하는 서하 문헌 중에 아직까지 서하의 인쇄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서하의 인쇄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매우 적다. 그래서 서하의 목판인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하의 인쇄물 자체와 그 책에 들어 있는 서문, 발문, 해제 등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서하의 인쇄물은 대부분 서적이다. 그래서 서하의 인쇄술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서하의 서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서하시기의 한문서적은 서하문으로 된 서적에 비해 훨씬 적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대부분은 불경이다. 예를 들어 『妙法蓮華經』,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金剛般若波羅蜜經』, 『佛說轉女身經』,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高王觀世音經』, 『佛說父母恩重經』, 『佛說大乘三歸依經』, 『密呪圓因往生集』 등 다양하다. 세속적인 문헌으로는 雜字, 曆書, 醫書 등이 있다. 西安에 소장된 『大方廣佛華嚴經』, 『佛說摩尼羅壇經』 그리고 일본에 수장되어 있는 『高僧傳』 등은 서하가 간행한 한문대장경의 진귀한 유물이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불교 의례문헌이 있다. 서하의 서북 여러 지역의 〈馬步軍編冊〉 등의 문서 역시 서하의 한문서적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소량의 서장문 서적 중 대부분이 불교저작이다. 이러한 문헌은 민족문화의 중요 요소이다. 따라서 서하서적은 서하문화의 중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한문문헌에 기록된 서하의 역사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래에 출토된 이 일련의 서하서적은 더욱 귀중한 것이다. 이 진귀한 문헌들은 서하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서하의 역사와 문화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서하의 역사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하 古書籍은 비교적 많은 수량이나, 그 중 대부분은 서하의 중기와 말기의 사본과 간본으로, 서하 초기의 서적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서하 초기에도 비록 서적이 있긴 했지만 그 때는 문자의 창제와 문화의 발전이 이제 막 발흥하려는 시기였다. 따라서 형성된 전적의 수량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적이 쉽게 훼손되기 때문인데, 더욱이 연대가 이르면 이룰수록 보존되어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이유는 서하는 중기 이후, 특히 仁宗 시기에 문화가 번영 국면에 접어들며, 세속서적과 종교서적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의해 이에 부응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유는 서하의 인쇄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아마도 서하 초기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규모의 인쇄는 서하 중기에 이르러 크게 융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대가 분명한 서하문 인쇄본은 서하 중기, 주로 인종 재위 天盛에서 乾祐 연간의 것이 가장 많다. 그러나 서하 후기인 ‘應天-光正’ 연간의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필사본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서하의 후기사회는 전란이 빈번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일이 소용되는 인쇄 작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대가 분명한 서하의 한문 인쇄본 가운데 세속문헌은 극히 적다. 그것은 서하에서 인쇄한 한문 세속문헌들의 일부는 간행연도가 아예 없거나, 혹은 그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이 서하의 어느 시기의 간본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 흑수성 문헌 가운데 비교적 완전한 서적은 모두 성 밖의 탑 안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서하시기에 봉안되어 보존된 것으로 서하시기에 통용되고 유전된 서적일 것이다. 그 탑 안에는 또한 중원지역, 즉 송나라와 금나라 당시의 서적이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것들은 송나라와 금나라에서 서하로 유입된 목판본 한문서적들로, 당시 중원지역과 서하 사이에 밀접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중원의 왕조가 서하의 인쇄문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서하의 국내에 있었던 한문서적에 대한 일부 수요는 당시 한문문화를 주도했던 송나라와 금나라에서 이미 각인이 이뤄진 것들을 단지 수입해 이용하면 충족되었을 것이므로 새롭게 목판에 인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하문 서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국에서 독자적으로 목판 인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하는 일찍부터 刻字司 라는 전문 인쇄기관을 설치하여 인쇄 업무에 주력하도록 했다. 각자시는 서하중부의 5등 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 하나의 기구였으나, 서하의 인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서하는 각 왕조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정부기구 가운데 전문적으

로 刻字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한 나라였다. 서하의 각자사에서 많은 양의 서적을 간행했는데, 현재 그 간행처가 각자사로 알려진 서적은 적지 않다. 서하문 『儒林』의 권1 말에 ‘乾祐癸丑12年6月24日 刻字司刻’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각자사에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각본인 『聖立義海』, 『論語』, 『六韜』, 『三略』과 『儒林』에는 서로 같은 이름의 刻工이 있다. 이러한 각공들은 아마도 각자사의 장인에 속할 것이다. 이상의 몇 종의 인쇄서적은 모두 각자사에서 간인한 것으로, 모두 세속문헌이다. 이처럼 서하의 서적은 아래와 같이 중·후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서하 인쇄본의 수량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하처럼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인구도 많지 않은 왕조에서 인쇄한 경전의 수가 만권에서 많게는 수 만권에 달했다.

둘째, 서하본은 각자사 등의 관청에서 인쇄한 것이 많았다. 황실에서 주도하여 인쇄한 수량이 많으며, 이에 반해 개인이 간행한 수량은 비교적 적다.

셋째, 서하본은 초기에 인쇄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주로 중·후기의 책들이 많다. 인종과 황태후 나씨가 印經한 것이 수 차례이고 수량도 많다.

이처럼 서하는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적 토대 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인쇄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까닭에 서적의 품질이 매우 뛰어났다. 이로 인해 상당히 진보한 인쇄기술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서하 인쇄서적을 볼 때, 서하의 인쇄기술과 서적의 품질은 당시 송·요·금나라의 수준과 비교할 만큼 훌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우수했던 〈서하문헌〉에는 서하의 전성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父母恩重經〉 西夏文 1종과 漢文本 4종 등 5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은중경의 성립 및 간행 사실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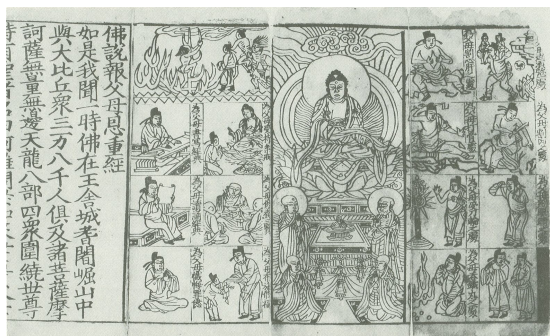
Ⅲ. 西夏本 〈父母恩重經〉 板本

1. 佛說報父母恩重經(TK119)

흔히 은중경은 중국에서 편찬된 偽經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중국에는 현재 은중경 판본이 한 책도 남아 있지 않아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은중경 판본으로 1300(大德4)년에 간행된 〈佛說父母恩重經〉(3권1첩)이 현재 경주 기림사에 수장되어 있으며, 또한 판식이 전혀 다른 〈佛說大報父母恩重經〉 2종이 1378(戊午)년에 간행되어 현재 기림사 및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화에 나타난 도상이 우리 모습이 아닌 중국적인 요소가 스며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중국본을 단순히 覆刻 또는 翻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중국적 요소를 판화의 소재로 삼

아 독자적으로 판각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서하문헌이 『俄藏黑水城文獻』으로 영인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무려 5종의 은중경 판본이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판본이 바로 권수에 변상도 1점이 수록되어 있는 〈佛說報父母恩重經〉(TK119)이다. 이 책6에 부록되어 있는 〈敍錄〉에 의하면 이 판본은 서하에서 판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본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접장본(16摺)으로 표지와 후반 일부가 일실된 상태이며, 접은 상태의 크기는 20.5×7.8cm이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권수에 변상도 1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크기는 23.4×17.4cm이다.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권자 또는 접장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 장의 길이는 8-9점로 일정치 않으나 점련부분에 장수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1절은 5행으로 한 행은 16-17자로 배자되어 있다. 지질은 전혀 염색되지 않은 순수한 麻紙이며, 자체는 송판본 서체로 인쇄 상태는 묵색이 선명하다.



〈사진 1〉 서하본(TK119)

특히 서하본 〈佛說報父母恩重經〉의 권수에 있는 變相圖는 3분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석가의 설법도가 그려져 있고 좌우로 8장면이 구획되어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설법도는 상반부에 석가가 연화좌 위에 앉아 설법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향로가 얹혀진 법상 좌우로 4명의 불제자가 배치되어 있다. 법상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이 합장하고 서 있고, 그 앞쪽으로 무릎을 꿇은 두 명의 제

자가 역시 좌우에 배치된 도상이다.(사진 1)

그리고 좌우에 배치된 장면은 우측에 4면씩 2열로 모두 8면의 작은 구획을 만들어 8비유를 도상화하였다. 이 도상의 구성은 경전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제 2열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배치는 아래와 같다.

第 1 列	第 2 列
① 爲父母遠須彌山處	⑤ 爲父母割心肝之處
② 爲父母割肉之處	⑥ 爲父母打骨處
③ 爲父母剜眼睛之處	⑦ 爲父母受刀輪之處
④ 墨等	⑧ 爲父母吞鐵丸之處

위 8종의 비유장면은 한국본과 비교해보면 도상의 내용과 순서가 일부 다른 점도 있으나 대부분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측 제 1열의 4번째 장면만은 묵등(墨等)으로 처리되어 있어 화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본문에 〈體掛身燈之處〉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음

이 확인된다. 그래서 도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7장면은 모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 장면만은 단순히 2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몸에 등불을 밝히는'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등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좌측은 상하 4단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가장 위칸은 불길과 옥졸에게 쫓기는 고통을 그린 지옥도는 2면을 합쳐 간략히 표현하였고, 2-4면은 우측처럼 좌우로 칸을 나누고 각 장면의 제목과 변상을 표현한 것인데 부모의 막중한 은혜를 갚기 위해 삼보를 공양하고 경을 수지, 서사, 독송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배치는 아래와 같다.

地獄圖	
第 1 列	第 2 列
① 爲父母受持條戒	④ 爲父母書寫經典
② 爲父母供養三寶	⑤ 爲父母讀誦經典
③ 爲父母布施修福	⑥ 爲父母懺悔罪愆

이처럼 각 장면에 해당하는 도상 역시 간략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무오본에서는 이를 한 장면 안에 표현하였지만, 여기서는 여러 장면으로 구분한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이유는 8비유 장면과 함께 좌우가 서로 대칭되는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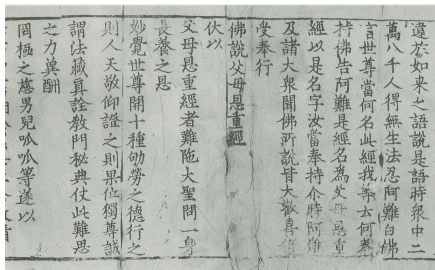
그리고 서하본 은중경의 내용을 고려본과 비교해 보니, 기림사 소장의 대덕본(1300년간) 상권의 내용과 앞부분의 <10恩德>까지는 대체로 일치되고 있으며, 그 이후 <頌文>부터는 무오본(1378년간)과 대체로 일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림사 소장의 대덕본은 상중하 3권1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나, 이보다 대덕본과 체제나 내용이 동일한 고려사경이 앞서 1250년에 사성되어 현재 일본의 경도 寶積寺에 소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3권본 은중경은 이 시기 보다 앞서 중국에서 사본 형태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3권본 중 상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十恩德> 부분을 새로 편입시키고 권수에 <비유도>와 경전의 끝 부분의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권두서명에 '報'자만 들어가는 점으로 보아, 완성된 판화와 서명에 '大報' 2자가 들어 있는 고려 무오본(2중)의 시원적 성격을 지닌 과도기적 판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판본은 권말 일부가 일실되어 간기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책이 서하 혹은 송나라 어느 나라에서 간행되었는지, 또한 어느 시기에 판각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자체의 특징은 송판의 복각으로 보인다.

3) 이 서하본 은중경의 변상도에 대해서는 박도화에 의해서 고려 戊午本 변상도와 비교를 시도하여 도상 형성과정을 처음으로 분석한 논문이 보이고 있다. 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變相圖의 圖像형성 과정」, 美術史學報 23輯(2004. 12), pp. 143-145 참조.

2. 佛說父母恩重經(TK12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방학연구소에는 흑수성 발굴본 서하 불경에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이름한 은중경 2종이 수장되어 있다. 이 판본은 『俄藏黑水城文獻』(책3)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 행에 13자와 12자로 되어 있어 판식이 전혀 다른 이판(異板)에 해당된다. 이 중에 접장형식의 13자본은 〈敍錄〉에 보면, 서하에서 판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본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판본은 접장본으로 전후의 표지 및 전반 중반 권말의 발문 일부가 일실된 상태이다.



〈사진 2〉 서하본(TK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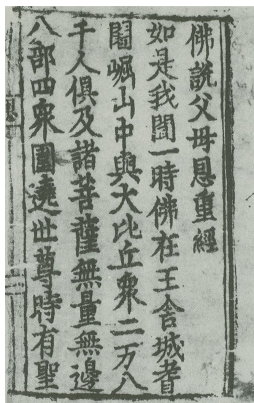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5.5摺(11面) 정도이며, 접은 상태의 크기는 20.7×8cm이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권자 또는 접장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련부분에 장수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접은 1절은 5행으로 한 행은 13자로 배자되어 있다. 지질은 전혀 염색되지 않은 순수한 마지(麻紙)이며, 자체는 송판본 서체로 인쇄 상태는 묵색이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본은 권말에 발문의 일부가 남아 있어, 판본의 간행경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그 전문을 아래에 전제한다.(사진 2)

伏以/父母恩重經者, 難陀大聖, 問一身/長養之恩, /妙覺世尊, 開十種勛勞之德, 行之/則人天敬仰, 證之則果位獨尊, 誠/謂法藏真詮, 教門秘典, 仗此難思/之力, 冀酬/罔極之慈, 男兒呱呱等, 遂以/亡考中書相公累七至終, 敬請/禪師·提點·副判·承旨·座主·山林戒德, 出在家僧衆等七千餘員, 燒結/滅惡趣壇各十座, 開闡番漢大藏/經各一遍, 西番大藏經五遍, 作法/華·仁王·孔雀·觀音·金剛·行願品·乾/陀·般若等會各一遍, 修設水陸道/場三晝夜, 及作無遮大會一遍, /聖容佛上金三遍, 放神幡伸靜供/演懺法, 救放生羊一千口, 仍命工(以下 逸失)

위의 발문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서하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문의 내용을 기림사 소장본의 대덕본과 무오본, 그리고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구역본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명이 동일한 대덕본과 비교해 보면, 현재 남아있는 내용은 앞과 뒤쪽의 일부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판본들과는 경문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판식의 특징으로 보아 현존 목판본으로는 가장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佛說父母恩重經(TK13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방학연구소에는 흑수성 발굴본 서하 불경에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이름한 은중경 2종 중 한 행에 12자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俄藏黑水城文獻』책 6에 부록되어 있는 〈敍錄〉에 의하면, 이 판본은 서하에서 판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본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4〉 서하본
(TK139) 권두제



〈사진 3〉 서하본
(TK139) 변상도

이 판본은 호접장 형태로 전후의 표지를 비롯하여 전반에서 중반의 반엽과, 권말 일부가 일실된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권수 변상도 1장, 장1, 3, 5의 우엽, 장2, 5, 7 좌엽 등 모두 7엽에 불과하다. 책의 크기는 14×8.5cm에 불과하여 후대의 편리를 위해 소책자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수에는 변상도 반엽이 남아 있는데, 雲紋을 배경으로 두 스님이 길을 가다 합장한 채 서서 무엇인가를 주시하는 모습이 마치 무오본에 보이는 〈如來頂禮圖〉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사진 3) 권두

의 서명은 '佛說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에 역자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으나, 간혹 左右雙邊도 보이고 있어 호접장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반엽을 기준으로 5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행은 11-12자씩 배자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12.2×7.1cm이다. 지질은 전혀 염색되지 않은 순수한 麻紙이며, 자체는 송판본 서체로 인쇄 상태는 목색이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사진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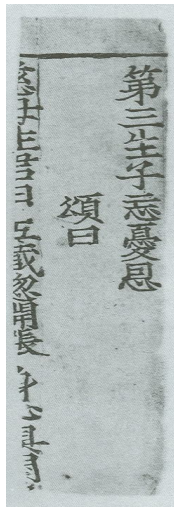
그리고 경문의 내용을 기림사 소장 大德本, 戊午本, 그리고 앞의 서하본 2종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명이 동일한 대덕본 및 서하본과 비교해 보면, 현재 남아있는 앞쪽은 대덕본과 유사하나 뒤쪽은 서하본과 일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판본들과는 경문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장정이 호접장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권수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판본은 비교적 초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TK240)

이 판본은 서하본 〈恩重經〉 가운데 우리의 고려후기 통행본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되는 판본이

다. 그러나 이 판본은 殘片 한쪽에 불과하여 〈은중경〉의 정확한 서명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⁴⁾

이처럼 비록 小片에 불과하나, 앞의 3종과는 편집체제가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고려 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고려본과 매우 유사한 편집방식을 보이고 있어 가장 주목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서하본은 아쉽게도 〈父母十恩德〉 중 〈第三 生子忘憂恩〉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만 잔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사진 5)



〈사진 5〉
서하본(TK240)

이 서하본은 현재 남아 있는 잔편 부분은 章題와 頌文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第三 生子忘憂恩
頌曰
慈母生君日 五臟惣開張 身心具闊 絶)

그런데 이러한 편집방식으로 되어 있는 판본은 현재 유일하게 고려 ‘戊午’(1378)년에 간행된 판본 2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서하본과 유사한 편집방식으로 되어 있는 고려본에 근거하여 서하본(TK240)의 경명을 잠정적으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이름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 경명을 정확히 밝히는 일은 현존본 〈은중경〉은 그 명칭에 따라 경문의 내용이 크게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판본의 성립과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불과 2세기 동안 존속했던 서하에서 〈佛說父母恩重經〉을 비롯하여 〈佛說報父母恩重經〉과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이름되는 여러 종의 다양한 〈은중경〉 판본이 유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Ⅳ. 高麗本 〈父母恩重經〉 板本

1. 佛說父母恩重經(大德本)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은중경 판본은 대략 8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3종만이 고

4) 이 서하본 TK240 판본은 『俄藏黑水城文獻』(冊4, p.249)에 그 書影이 실려있다. 그런데 편찬자는 이 書影의 제목을 ‘佛說父母恩重經’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려 무오본 및 구역본과 그 체제나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이름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려시대에 간행된 판본이며, 그 나머지 판본은 모두 조선시대 궁실과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고려본 3종 가운데 경주 祇林寺에는 板式이 전혀 다른 2종의 고려본 은중경이 수장되어 있다. 그 중 大德 4(1300)년에 간행된 『佛說父母恩重經』은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현존 최고의 은중경 판본이다.

그런데 이 책은 上·中·下 3권 1책으로 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본과는 그 편성체제가 전혀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존 유통본이 대부분 본문 가운데 많은 板畫가 수록되어 있는데 비하여, 大德本에는 고려말 이후로부터 간행된 판본에 들어있는 판화가 한 장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현행본과는 편성체제상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卷下의 末尾에는 連山監務所 仕郎인 李永成의 跋文과 年紀가 분명히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판각 간행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 책은 불북에서 최근 보존처리를 하여 전후의 표지가 改裝된 상태인데, 그래서 아직 표지에는 서명이 보이지 않고 있다. 卷頭의 書名이 '佛說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말 이후의 刊本이 모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大報' 2字가 添入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권두서명에는 '卷上'이란 서지적 개념의 구분 표시가 삭제되어 있는데, 권상의 권말제와 권중과 권하에는 모두 서지적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권중의 권말제 다음에 '南無蜜栗帝 多婆曳 娑訶'라는 眞言이 수록되어 있으나, 권상과 권하의 뒤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卷下의 末題 다음에 發願文과 刊記, 그리고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하였던 사람의 이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어 高麗刊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하면, 이 책은 대덕 4년인 고려 충렬왕 26(1300)년에 主上壽命과 父母兄弟의 靈駕를 위하여 당시 監務所仕郎인 李永成과 滿雲寺 三重大師 又玄, 道人 智安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간행장소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어 어디에서 간행된 책인지는 알 수 없다.

기림사 소장의 대덕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어 帖裝이나 卷子의 형태에 적합한 형식으로 판각되어 있는데, 이 책은 摺裝의 형태로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30.5×11cm이며, 인쇄면의 板高는 23cm이다. 行字數는 접은 한 면을 기준으로 5行으로 되어 있으며, 한 행에는 14자씩 배자되어 있다. 매장의 길이는 55cm이며, 5折로 모두 25行이 수록되어 있다. 자체는 당대의 구양순체를 바탕으로한 寫經體의 筆意를 방불케 한다. 표지는 본래 복장시에 결락되어 있다가 佛腹에서 발견된 이후 새로 두터운 楮紙로 개장한 것을 최근 완전하게 보수하였다.

기림사 소장의 대덕본의 각 권의 내용과 체제를 살펴보면, 전체 11장 분량 중에 권상이 6장, 권중이 4장, 그리고 권하가 1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전의 발생적 측면에서 보면, 권하, 권중, 권상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보완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기림사에 수장되어 있는 대덕본은 본문의 내용이 上·中·下 3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3권이 각각 약간의 중복이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각 권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경도국립박물관(伊藤庄兵衛 舊藏)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 〈高麗紺紙金泥佛說父母恩重經〉 사경 1종이 수장되어 있다. 이 사경은 大德本 보다는 대략 50여년 앞선 1250년에 寫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따라서 13세기에 이미 대덕본과 경문의 내용이 동일한 은중경이 우리나라에 유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본을 저본으로 판각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佛說大報父母恩重經(戊午本)

경주 기림사에는 大德本 외에 고려말 '戊午'의 간지가 기재되어 간행된 판본이 한 종 더 수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판본과 같은 해인 '戊午'의 간지가 있는 판본이 또한 현재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두 판본은 편집방식과 板式의 특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異板에 해당되나, 공교롭게도 같은 '戊午'해의 간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혹 동일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판본은 單卷本으로 본문에 판 화가 들어가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판본으로는 현재까지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板畫에 나타난 모습은 우리 모습이 아닌 중국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어 있어 자못 의문을 갖게 한다. 그것은 또 다른 중국본을 단순히 복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중국적 요소를 판화의 소재로 채택하여 판각한 것인지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명에서도 '大報'라는 2字가 더 첨가되어 있어, 새로운 편찬 방식에 있어서 그 어떠한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기림사 소장의 고려 戊午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쪽물을 드린 종이로 만든 전후의 표지는 충식이 심한 상태이나, 최근 완전하게 수리되었다. 앞표지의 중앙에는 제침이 붙어 있으나, 서명이 '佛說大報父'만 남아 있어 경제의 절반은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지를 넘기면 바로 권수제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란 경제가 보이고, 다음 행으로부터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경문의 사이에는 모두 21장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만 〈十恩圖〉의 경우 판화는 상단에 경문은 하단에 수록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으로 卷子나 帖裝에 적합한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변란의 板高는 22cm이며, 行數는 접은 한 면을 기준으로 6行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 줄마다

5) 기림사본과 내용이 동일한 上中下 3卷本 〈佛說父母恩重經〉 高麗寫經이 현재 일본에 傳存 되고 있다. 이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일본인 禿氏祐祥이다. 그는 1928(昭和3)년에 쓴 그의 논문 「父母恩重經の異本に就て」(『宗教研究』新第5卷第4號, 1928)에서 大報本의 여러 이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京都의 春當市에 살고 있는 伊藤庄兵衛가 소장하고 있는 3권本 〈紺紙金字佛說父母恩重經高麗寫經〉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은중경의 實物 寫眞은 이보다 2호 앞서 발행된 『宗教研究』新第5卷 第2號의 卷頭에 실려 있고, 논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그후 그는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高麗時代の寫經に就て」(『寶雲』第25冊, 1939)이란 논문에서 다시 이를 축약하여 소개한 바 있다(宋日基, 「경주 祇林寺 소장 〈佛說父母恩重經〉에 관한 研究」, 『文獻情報學報』 제7집(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2004. 11)).

20字씩 配字되어 있어, 字經은 1cm 남짓하다. 한 장은 30行이 배열되어 있어 5번의 접은 면으로 나타나며, 한 장의 길이는 55.5cm로 모두 9張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板心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나, 行間에 ‘恩’라는 간략 서명과 그 밑으로 張次표시가 보이고 있다. 板心題가 다른 계통의 판본에는 일반적으로 ‘父母’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卷末題 다음으로 ‘報父母恩重眞言’이 수록되어 있고, 그 眞言의 끝 부분에 ‘戊午五月日開板化主 自延/施主比丘 法弘·金臣柱’라는 刊記가 2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맨 끝에 願牌로 보이는 圖記가 찍혀 있는데, 인출 후 여기에 발원자에 사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뒤표지의 안쪽면에 ‘施主朝奉大夫司宰少監李成壽/恭人崔氏’라는 묵서한 施主記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간기에는 단순히 干支로만 ‘戊午’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대를 고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다른 판본을 조사해보니, 이 책과 동일 간지를 갖고 있는 『長壽經』이 현재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 이 판본은 趙明基 旧藏으로 보물 70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역시 卷末에 ‘戊午五月日重刻’이라는 刊記와 ‘勸善比丘 自延/同願比丘 覺寬/同願比丘 解禪/施主比丘 法弘·金臣柱’라는 간행 참여자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⁶⁾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책의 간기면에 ‘戊午’라는 干支와 自延, 法弘, 金臣柱 등의 동일 인물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판식의 특징과 간기면에 수록된 인물의 면면으로 보아, ‘戊午年’은 바로 고려 우왕 4년(1378)으로 추정된다.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 戊午板을 저본으로 覆刻 또는 飜刻한 판본이 현재 대략 4종이 전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 책은 고려말 1378년에 판각된 판본으로,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은중경 판본 중에 처음으로 본문 가운데 板畫가 수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아마도 일반 독자들이 경전 내용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판화를 수록하는 새로운 방법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⁷⁾

3. 佛說大報父母恩重經(鳩譯本)

고려본 은중경에 ‘戊午’의 干支로 刊記가 기재된 판본이 현재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하나는 앞서 살펴 본 경주 기림사에 수장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6)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文化財大觀』(서울:大學堂, 1994) 제8권, 圖版 74(p.145) 및 解說(p.246) 참조

7) 현재 중국의 여러 書目을 조사해 보았으나, 이상스럽게도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은 明刻本인 北京圖書館藏本 1종이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목을 통해서 일본의 판본으로는 永德 3(1383)년에 道祐가 간행한 책이 일본의 국회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 中·日 양국의 판본은 大德本 이후에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말에 개판된 戊午本 보다는 늦다. 앞으로 경문의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판본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 판본에는 판화의 형식, 합철 상태, 그리고 판식의 특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혀 동일한 판본은 아니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고려 鳩譯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의 표지는 감지로 되어 있으며, 원형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앞표지의 중앙에는 경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지를 넘기면 바로 卷首題인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란 경제가 보이고, 다음 행에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이란 譯者 표시가 새겨 있으며, 다음 행으로부터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권수에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라는 서명은 다른 판본에서도 볼 수 있으나, 역자표시가 기재된 판본은 흔치 않다.

흔히 恩重經은 불교의 ‘孝經’으로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眞經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鳩摩羅什’이란 최고의 역경자의 이름을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해의 간본인 기림사본에는 역자 표시가 없다. 그리고 경문의 사이에는 모두 21장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만 〈十恩圖〉의 경우 기림사본과는 달리 한 면에 온전히 수록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鳩譯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상하단변으로 권자나 접장에 적합한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변란의 상하간 板高는 21.5cm이며, 行數는 접은 한 면을 기준으로 6행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 줄마다 15자씩 배자되어 있고, 字徑은 1.4cm 남짓하다. 접은 면을 기준으로 길이는 10.7cm이나, 한 장은 5절로 되어 있어 길이는 53.5cm 정도이다. 접장본으로 板心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나, 절첩 부분에 ‘父母’라는 간략 서명과 그 밑으로 張次 표시가 보이고 있다. 기림사본에는 ‘恩’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권말에 ‘眞言曰……’ 이하의 진언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 진언이 끝나는 다음 행으로부터 異本 은중경으로 보이는 ‘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합본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합본의 말미에는 發願記가 수록되어 있고, 다음 행에는 ‘上護軍 韓葦’을 비롯해서 ‘光州郡夫人 金氏’와 ‘上黨郡夫人 韓氏’ 등 시주자가 보이고, 이어 ‘同願 桓浩’와 ‘化刊 □□’이 기재되어 있으나, 화간의 경우 인쇄가 희미하여 판독이 곤란하다.

그런데 궁교롭게도 이와 동일 干支가 있는 판본이 현재 보물 70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역시 권말에 ‘戊午五月日重刻’이라는 刊記가 있어 같은 해 같은 달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원기에 보이는 상호군 한천은 러말선초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아, 이 책은 1378년인 무오년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본은 선초 1407년, 1432년, 1454년에 간행된 판본과 동일한 판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들 간에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판본이다.

그리고 일반 민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恩重經〉 판종 가운데 처음으로 본문에 삽화적 성격을 지닌 판화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독특한 편집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구역본 은중경은 조선 초기에 궁중에서 功德經으로 간행된 이 계통의 판본들의 모본으로 보인다.

V. 西夏 TK240本과 고려 鳩譯本의 비교

일반적으로 중국의 송대 이전 시기에 은중경은 변문의 형식으로 지역마다 사본 형태로 유포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볼 수 있는 사본은 돈황 지역을 중심으로 유포되었던 자료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⁸⁾ 그후 목판인쇄술의 본격적인 등장과 더불어 서하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유통되었던 목판본 4종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서하 이외에 14세기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이 중국에서는 한 종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우리 나라에서 3종이, 그리고 일본에서 1종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서하본의 판본학적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⁹⁾

그러나 서하본은 상당부분이 일실된 상태이거나 잔편 한쪽에 불과하여 경문의 온전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고려본은 그 전문이 완전하여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하겠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경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하본 가운데 고려후기 鳩譯本과 유사한 편집 형식을 보이고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TK240)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판본은 비록 小片에 불과하나, 고려후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고려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가장 주목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서하본은 아쉽게도 전문 중 〈父母十恩德〉의 〈第三 生子忘憂恩〉에 해당되는 극히 일부만 잔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 고려본은 1378년 발문이 있는 호암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鳩譯本이다.

이처럼 구역본은 서하본 잔편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본의 母本이 과연 서하본 또는 더나가서 송판본과의 상호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하본은 접장본으로 제 3은인 〈生子忘憂恩〉의 일부만 보이고 있는 잔편(殘片)이다. 그래서 호암본에서 이 부분을 전채해 오면 다음과 같다.

8) 이에 대해서는 최근 논문인 鄭阿財의 ‘〈父母恩重經〉傳佈의歷史考察’(『新世紀敦煌學論文集』, 巴蜀書社, 2003)이란 논문이 참고된다.

9) 북경대학의 馬世長은 ‘〈報父母恩重經〉板本 綜合考察’, 『雲興寺木板資料集』(창원: 창원문화재단연구소, 2003)에서 西夏印本の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나, 서하본(TK240)의 구체적 사실이나 한국본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사진 6〉
鳩譯本(第3恩)

第三 生子忘憂恩
頌曰
慈母生君日 五臟忽開張
身心具悶絕 血流似屠羊
生已聞兒健 歡喜倍加常
喜定悲還至 痛苦徹心腸

서하본은 이 중에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章題와 頌文 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은 아래와 같다.

第三 生子忘憂恩
頌曰
慈母生君日 五臟忽開張 身心具悶(絶)

따라서 이 2본을 비교해 보면, 서하본의 편집 방식은 전체적으로 구역본의 체제와 유사하면서도 계송문의 체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구역본은 5자씩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서하본은 이와는 달리 5자씩 3단락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서하본은 '絶'자 이하가 떨어져서 정확히 몇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구역본이 2단락씩 4행으로 되어 있는데, 서하본이 만약 2행으로 구성했다면 한 행은 4단락으로 배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서하본은 첫 글자인 '慈'자가 上邊에 바짝 붙어 있으나, 호암미술관 소장의 구역본은 상하변과 글자사이가 상당히 여유롭다. 그렇다면 4단락으로 한 행에 20자가 배자된 방식으로 구성된 서하본은 글씨의 크기(字徑)가 소자이거나 아니면 상하 변란 사이의 길이가 구역본에 비해 긴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장제 〈第三 生子忘憂恩〉의 오른쪽 부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다시 구역본을 보면, 〈十恩德〉부분은 十恩의 편집방식은 장제와 송문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적합한 삽화가 배치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진 6)

그렇다면 서하본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한국본의 편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셈이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본의 초기 판본이 송판 또는 서하본의 飜刻 내지 覆刻으로 단정지어야 할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제 부분이 바짝 붙어서 떨어져 있어 이 부분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체 구성방식이 비록 판화 부분을 확인키 어려우나, 장제나 송문의 체제가 유사하여 이 서하본과의 친연성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서명에 '大報' 2자

가 첨가되어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집방식으로 보아 서하본 4종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본 서하서적은 대략 1073년에서 1210년 사이에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략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서하서적 중에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宋板과 金板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하간본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요구가 된다. 또한 梁吉祥狗가 1152(天盛4)년 서하문으로 1천 권이나 간행한 〈佛說父母恩重經〉도 존재하고 있어, 과연 이 은중경 잔편이 서하간본 또는 송판 전래본의 여부는 면밀한 검토와 새로운 관련 자료의 출현이 필요하다. 다만 13세기 이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1378년에 간행된 구역본과 매우 유사한 판본이 이미 서하에서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중경의 성립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VI. 結 論

이상에서 고대 서하의 영토였던 흑수성의 불탑에서 발견된 한문본 은중경 4종과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간행된 목판본 3종을 중심으로 판본의 특징 및 경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서하는 1032년에 건국하여 1227년에 몽고에 멸망하기까지 역대 10대의 제왕과 195년의 역사를 지니고, 그리고 광활한 영토, 완벽한 전장제도를 유지했던 국가 있었다. 그러나 서하는 독자적인 역사서가 전하지 않고, 또한 중국의 정사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진 나라로 머물러 왔다. 그런데 서하가 망한지 680년이 지난 20세기 초반인 1909년에 러시아의 탐험대 코즐로프(柯茲洛夫)를 대장이 흑수성(黑水城) 유적에서 서하유물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서하는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적 기초 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인쇄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다양한 문헌을 간행하였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서하 인쇄본을 보면 당시 동아시아의 송·요·금나라의 수준을 능가할 만큼 훌륭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처럼 러시아의 탐험대가 흑수성(黑水城) 불탑에서 서하문헌이 여러 유물과 함께 발견되어 현재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의 상트페테르부르크박물관에 보존있다. 이 자료는 필사본과 간인본(刊印本)을 포함해서 대략 천 여권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서하시기의 것이고, 송대와 금대의 서적 일부가 들어있다. 이러한 서적은 서하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서하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서적과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흑수성 불탑에서 발견된 서하문헌에는 한문본 은중경 4종이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의 판본적 특징 및 경문의 내용을 고려본 3종과 상호 비교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① 佛說報父母恩重經 (TK119)

이 서하본은 〈佛說父母恩重經〉 3권본 중 상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十恩德〉 부분을 새로 편입 시키고, 권수에 〈譬喻圖〉와 경전의 「流通分」 내용이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권두서명에 ‘報’ 자만 들어가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 무오본(2종)의 시원적 성격을 지닌 과도기적 판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판본은 권말 일부가 일실되어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책이 서하 혹은 송나라에서 간행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자체의 특징이 서하각본으로 보인다.

② 佛說父母恩重經 (TK120)

이 서하본은 발문에 의해 서하에서 판각된 것은 분명해 보이며, 경문의 내용을 고려본 3종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른 판본들과는 경문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존하는 은중경 판본 가운데 가장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佛說父母恩重經 (TK139)

이 서하본은 장정이 호접장 형태로 되어 있고, 자수가 12자로 앞의 판본(TK120)과는 판식의 특징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록 서명이 동일하나 이판에 해당된다. 또한 경문의 내용을 고려본 3종과 앞의 서하본 2종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명이 동일한 대덕본과 서하본의 경문을 비교해 보니, 앞부분은 대덕본과 유사하나 뒤 내용은 서하본과 일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서하본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판본들과는 경문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장정이 호접장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권수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판본은 비교적 초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④ 佛說大報父母恩重經 (TK240)

이 서하본은 편집체제로 보아 서하본 4종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서하서적 중에는 비록 잔편 일부이기는 하나, 서하본 중에는 宋板과 金板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하간본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요구가 된다. 그리고 비록 판화의 수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편집방식은 고려의 鳩譯本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한국 본 〈은중경〉 형성에 깊이 영향을 준 판본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서하시대의 한문본 〈은중경〉은 서하의 존립기간인 대략 1073년에서 1210년 사이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도 대략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반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간행의 순차는 TK120 → TK139 → TK119 → TK240 순서로 간행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하본 〈은중경〉 중 TK240본은 고려후기에 한국본 〈은중경〉의 형성과정에 직접적인 증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俄藏黑水城文獻』第1冊～第11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英藏黑水城文獻』第1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中國藏西夏文獻』第1冊～第4冊.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2005.

史金波. 『西夏史稿』.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82.

史金波. 『西夏史論文集』.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4.

史金波. 『西夏文物』. 北京: 文物出版社, 1988.

史金波. 『西夏佛教史略』.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8.

史金波.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장춘식. 『目連說話新論』. 서울: 景仁文化史, 2001.